



1 전남 신안 태양광 발전소 2 한국남동발전 사옥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new renewable energy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한국남동발전 “신재생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도약”

한국남동발전(KOEN)은 전력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된 발전회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력산업을 이끌어 온 남동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 에너지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큰 위기를 마주했다. 남동발전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 설비 1.2GW 운영...탄소중립 선도

남동발전은 발전공기업 처음으로 2020년에 영암 태양광, 삼수 풍력 등 531MW 신재생 설비를 준공하며, 신재생 발전설비 누적용량 1GW 시대를 개막했다.

2021년에는 국민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국가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에너지 안보 확보,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 비전 3430(34년 신재생 발전 비중 30% 달성)을 수립했다.

또 주민참여형 신안 태양광, 새만금 육상태양광 등 198MW 설비 준공으로 총 1.2GW 설비용량을 확보했다.

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 발전설비를 운영하며 석탄 정책에 앞장서며 신재생 종합기업으로 꺾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확보...탄소제로 궤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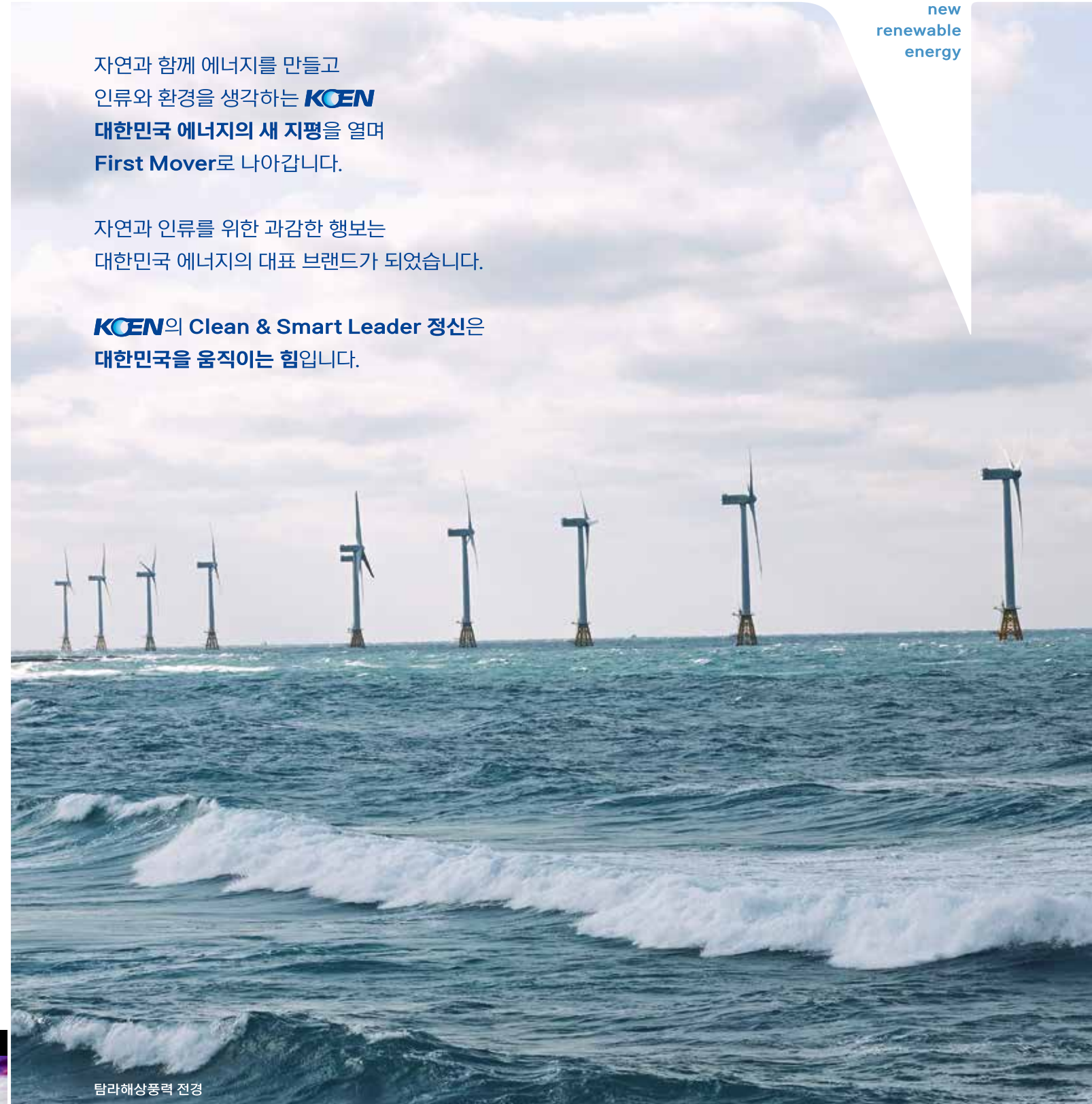
남동발전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에 집중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영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칠레 태양광 1단계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해 연간 4만3천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데 이어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 역시 CDM 사업으로 등록해 연간 24만 탄소배출권(30년생 소나무 3천600만 그루 식수 효과)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에는 김회천 사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해외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사업 개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남동발전은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칠레 2단계 태양광(73MW), 파키스탄 아스릿 케담 수력발전(215MW), 칼람 아스릿 수력발전(238MW) 등 3개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56만3천 탄소배출권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 ●

3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4 칠레 아리스티아 태양광발전소 5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발전소 6 신안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서 환영사 하는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탐라해상풍력 전경